

# 임영웅 콘서트 안방서 본다… 티빙 공개

오는 13일 ‘아임 히어로’ 서울 공연 실황 공개  
불고기뮤직 “VOD,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

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IM HERO) 서울 공연 실황 영상이 오는 13일 오후 7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을 통해 공개된다.

10일 소속사 불고기뮤직에 따르면 실황 영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담

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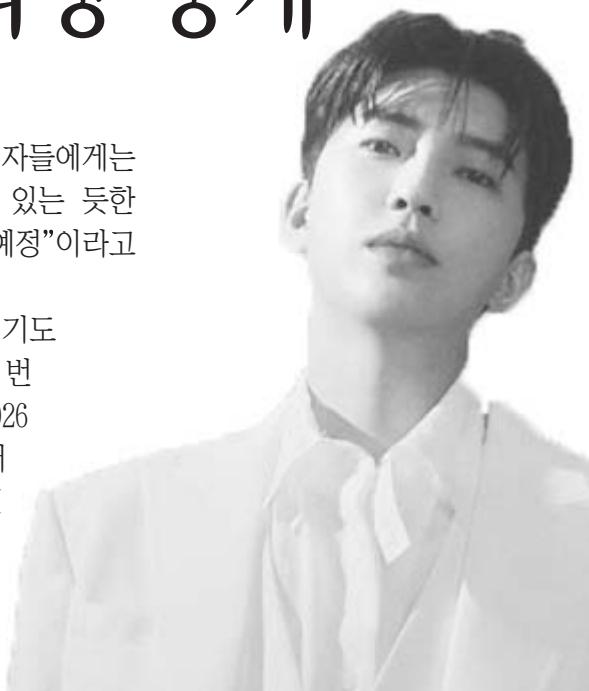
임영웅은 당시 범선 모양으로 만든 무대에 등장해 ‘원더풀 라이프’(Wonderful Life)로 오프닝을 장식했고, 힙곡과 정규 2집 수록곡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줬다.

불고기뮤직은 “이번 VOD는 다각도의 카메라 워크와 생생한 음향

으로 현장을 찾았던 관객에게는 마치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강한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영웅은 오는 9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두 번째 스타디움 콘서트 ‘2026 아임 히어로 콘서트 : 더 스타디움 2’(2026 IM HERO CONCERT : THE STADIUM 2)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영웅 서울 콘서트 티빙 공개. 불고기뮤직 제공

정원(엔하이픈) 생일 맞아 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리더 정원이 생일을 맞아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기부로 정원은 사랑의열매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3천88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기부금은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과 복지사업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원은 “작은 나눔이 환경이라는 벽에 부딪혀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응원이자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엠(몬스타엑스) 현역 입대  
“건강히 군생활 마치겠다”

그룹 몬스타엑스 아이엠이 9일 현역 입대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이엠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병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아이엠은 “몸 건강히 군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테니 다시 만날 때 까지 몸과 마음 모두 잘챙길게”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폭풍의 언덕’ ‘몬테크리스토 백작’

## 세계 명작 소설이 영화로 돌아온다



영화 ‘폭풍의 언덕’과 ‘몬테크리스토 백작’ 포스터.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찬란 제공

이른바 ‘세계 명작소설’로 꼽히는 두 작품이 연달아 영화로 만들어져 극장에 걸린다.

프랑스 대문호 알렉상드르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영문학 3대 비극으로 꼽히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다.

그간 수많은 연극과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각색된 작품들이지만, 화려한 출연진과 불거리로 ‘이야기의 힘’을 배가했다.

11일 개봉하는 ‘폭풍의 언덕’은 할리우드 대표 배우들과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감독이 의기투합해 원작의 분위기와 감성

을 과감하게 재해석했다.

서로를 간질히 원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미래를 함께할 수는 없는 캐시(마고 로비 분)와 히스클리프(제이콥 엘로디)의 과피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큰 틀은 원작 그대로다. 상대방과 자신을 모두 파멸로 이끄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맹목적인 정념이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됐다.

마고 로비는 “에메랄드 펜넬 버전의 ‘폭풍의 언덕’은 뱃속에서 들끓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한 줄 평을 전했다. 이에 뜻지 않게 도파민을 자극하

는 서사를 자랑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오는 13일 개봉한다.

억울한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잊은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원작 이야기를 충실히 담되, 영화적 스케일을 키웠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연출한 마티유 렐라포트·알렉상드르 드라 파렐리에로 감독은 지금까지 제작된 영화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작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로 환산하면 4천 페이지에 달하는 장대한 원작의 서사를 한 편의 영화에 압축해 담았다. 상영 시간은 178분으로 일반적인 상업 영화와 비교하면 다소 긴 편이지만, 원서의 분량을 고려하면 과감한 재구성이다.

주인공 애드몽 당테스 역은 프랑스 대표 배우 피에르 니네이가 맡았고, 이어지지 못한 연인 메르세데스는 아나이스 드무스티에가 소화했다.

제77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처음 공개됐으며, 프랑스 영화계의 권위 있는 상인 제50회 세자르상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우연상 등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연합뉴스

박성웅·이수경 ‘심우면 연리리’ 서 부부 호흡

다음 달 KBS 2TV 첫 방송

배우 박성웅과 이수경이 KBS 드라마 ‘개소리’(2024) 이후 2년 만에 부부로 다시 호흡을 맞춘다.

KBS는 박성웅·이수경이 주연하는 새 미니시리즈 ‘심우면 연리리’를 다음 달 2TV에서 첫 방송 한다고 10일 밝혔다.

‘심우면 연리리’는 어쩌다 농촌 연리리로 오게 된 도시인 가족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가족 드라마다.

극 중 박성웅은 능력 하나로 대기업 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연리리로 이주하게 된 K-가장 성태훈 역을 맡았다. 이수경은 회사에 뛰어난 남편 대신 세 아들을 흘로 키워낸 슈퍼맘 조미리를 연기한다.

박성웅과 이수경은 지난 2024년 연합뉴스



배우 박성웅·이수경. 각 소속사 제공

방영된 ‘개소리’에서 돌고 돌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한 가정을 일구는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부부로 다시 만나는 건 2년 만이다.

연출은 ‘24시 헬스클럽’, ‘크레이지 러브’, ‘출사표’ 등을 공동 연출한 최연수 감독이, 극본은 ‘결혼하자 팽팽아’, ‘태풍의 신부’를 쓴 송정립 작가와 ‘연애 빠진 로맨스’를 집필한 왕혜지 작가가 각각 맡았다.

연합뉴스

지드래곤, 팬 미팅서 빅뱅 20주년 컴백 예고

KSPD에서 열린 팬 미팅

3일 동안 약 4만명 모여



가수 지드래곤. 갤럭시코퍼레이션 제공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이 속한 그룹 빅뱅의 데뷔 20주년 기념 컴백을 공식화했다.

지난 9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6~8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D(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첫 솔로 팬 미팅에서 “올해 빅뱅이 20주년 컴백을 한다. 멤버이자 동시에 팬의 마음으로 저 또한 기대하고 있고, 멤버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또한 “곧 봄이 오니,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팬 미팅에서 3일간 약 4만명의 팬을 모았다. 새로 유입된 10대 팬들부터 빅뱅의 전성기를 함께 누린 오랜 팬들까지 서로 다른 세대의 관객이 모였다.

지드래곤은 360도 개방형으로 설계된 무대에서 ‘소년이여’, ‘니가 뭔데’, ‘테이크 미’(TAKE ME)



김종상 지단(知旦) 작곡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6136)

### 오늘의 운세 11일

	36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쁨, 48년 내 주장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혼통하고 일이 순탄하다. 60년 순리에 따르면 민사형탕, 서두르면 불리하니 어유를 가져라. 72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다. 귀가는 일찍 서둘러라. 84년 상대 비판은 나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90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42년 음식이나 유통업 분야에서는 기쁠 두배, 54년 실언을 하기 쉬우니 양평한 판단, 언행자제가 필요하다. 66년 외출이나 여행 등 활동이 많아지거나 불필요한 여행을 주의, 78년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90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43년 생명공학, 연구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다. 55년 시정 등 디자로운 코너도 진행했다. 지드래곤은 “(예매에 실패해) 투어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족 모임 같은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위시리스트 같던 시간이었고, 함께해서 더 즐거웠다. 사랑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팬 미팅에서 3일간 약 4만명의 팬을 모았다. 새로 유입된 10대 팬들부터 빅뱅의 전성기를 함께 누린 오랜 팬들까지 서로 다른 세대의 관객이 모였다.
	지드래곤은 360도 개방형으로 설계된 무대에서 ‘소년이여’, ‘니가 뭔데’, ‘테이크 미’(TAKE ME)
	지드래곤은 360도 개방형으로 설계된 무대에서 ‘소년이여’, ‘니가 뭔데’, ‘테이크 미’(TAKE ME)
	44년 관공서와 관계된 업은 계약이 생기기도 함. 56년 남아온 너머 나서면 주변의 시기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한다. 68년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형국이니 신중함이 필요. 74년 유통분야 길, 미혼자는 직업 또는 자격증이 필요. 86년 어떤 계획이든 세우면 절차히 실천해야 좋다.
	39년 문서관리에 보다 신중하고 보증 설정은 금지, 51년 아랫사람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63년 수입도 있으나 지출도 많지 않다. 교육비 증가가 생긴다. 75년 수습할 일에 생기거나 집안에 고급수가 주된다. 미팅 또는 약속이 이뤄진다.
	45년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 추진이 길하다. 57년 직장인은 상사 또는 아랫사람에게 인정, 존경을 받은 날이나 미소도 필요. 69년 모든 일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84년 외롭고 고독함이 세심 몰입으로 주변사람과 대화가 필요하다. 93년 새로운 일에 있게 되고 수입이 증가한다.
	46년 출발이 지체되고 약속이 종료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58년 호기심과 증동성이 강한 날이고 지출이 따로나 이모보다 내면에 지출을. 70년 소송 또는 관계구설이 있으니 공직자는 원칙을 고수하라. 82년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고 증동심이 강해진다. 94년 마찰이 올 수 있으니 저세술이 필요.
	47년 상대에게 거절을 못하고 응해주나 배신도 함께 따라온다. 59년 집안에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계시거나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71년 제조분야 건설분야 관공사업으로 약속이 따른다. 83년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다짐해야 한다. 95년 급히 서둘러 일이 생긴다. 문서 변화,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